

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

작은 마음

제2374호 2024. 11. 10. 연중 제32주일(평신도 주일)

제1독서 : 1열왕 17,10-16

제2독서 :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9,24-28

복 음 : 마르코 복음서 12,38-44

발 행 :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

주 소 :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'작은마음'

이메일 : chota_littlemm@naver.com

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
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다.
마르 12,44



Sr.WonGabriela

그림_ 가브리엘라 수녀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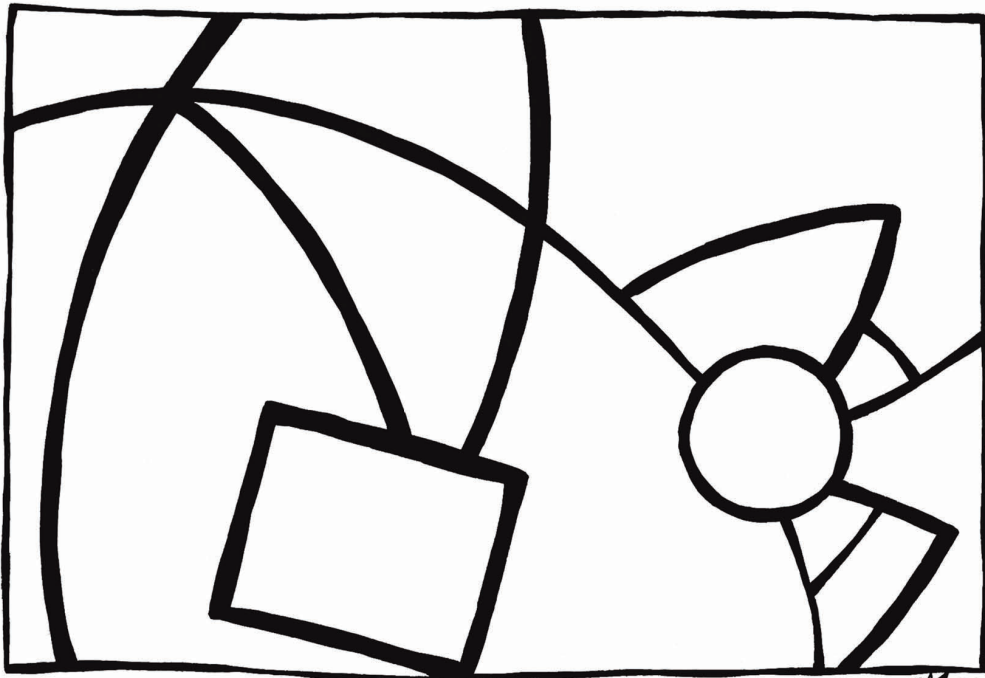


오늘의 미사

- ★ 화 답 송 ◎ 내 영혼아, 주님을 찬양하여라.
- ★ 복음환호송 ◎ 알렐루야.
◎ 행복하여라,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!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.
◎ 알렐루야.
- ★ 영성체송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어라.
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,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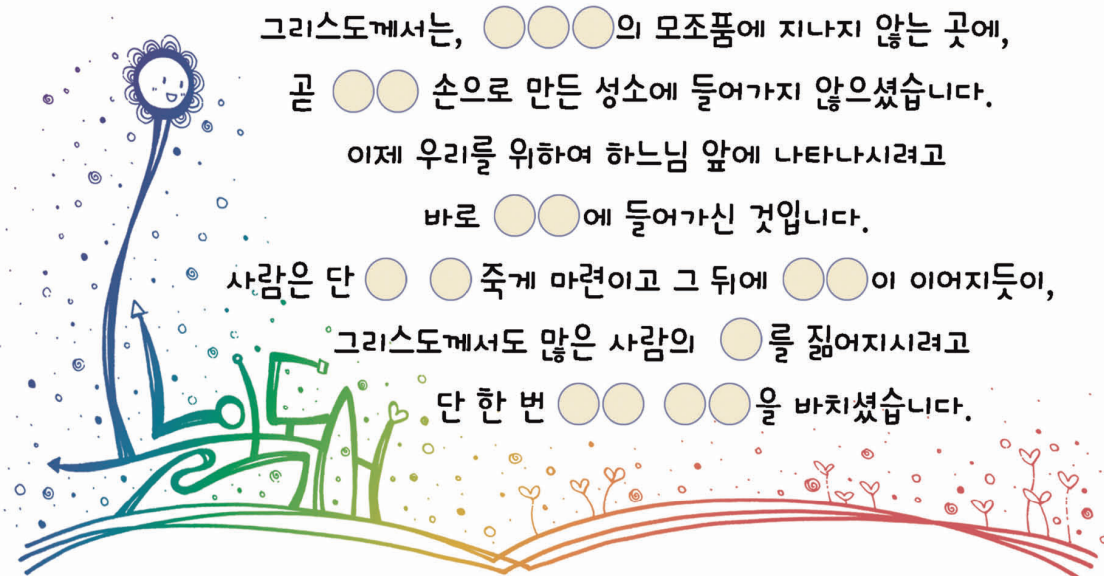
•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. (요한 15,9) •

말씀그림



● 말씀그림에 숨어있는 한글을 찾아보고 예쁘게 색칠하세요.

2024



그리스도께서는, ○○○○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곳에,

곧 ○○○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.

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려고

바로 ○○○에 들어가신 것입니다.

사람은 단 ○○○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 ○○○이 이어지듯이,

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○○○를 짊어지시려고

단 한 번 ○○○을 바치셨습니다.

◇ 제2독서 <히브 9,24-28>

● 오늘의 독서를 읽고 빈 칸을 채워 보세요.



신부님 말씀



13지구 난곡동 성당
류영우 다윗 신부님

무엇을 봉헌하고 있나요?

✙ 찬미 예수님!

작은마음 친구들, 안녕하세요! 오늘 복음은 가난한 과부의 봉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. 과부는 렘톤 두 닢을 넣었다고 하지요. 렘톤 두 닢은 오늘날 이천 원도 되지 않는 가치를 가진 돈입니다. (렘톤 한 닢: 하루 품삯의 128분의 1)

하지만 과부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지요. 그리고 여인은 그 돈을 아무렇지 않게 조용히 하느님께 봉헌합니다.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음식을, 하루를, 전부를 봉헌한 셈입니다.

내 모든 것을 봉헌해 본 적 있나요? 신부님은 부끄럽게도 아직 없습니다. 늘 내일을 생각하면 여유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오늘 복음의 과부는 놀랍게도 자신의 전부를 하느님께 봉헌하고 말긴 것입니다.

복음에서는 “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,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.”라고 이야기합니다. 예수님께서서는 왜 그것을 보고 계셨을까요? 사람들이 하느님께 얼마나 돈을 넣고 있는지 감시하셨을까요? 아닐 거예요. 많은 사람이 헌금함으로 다가와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과부는 돈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봉헌하였던 것이죠. 예수님께서서는 그 모습을 보려고 기다리셨을 거예요. 그 과부의 두 닢을, 전부를, 전 생애를 기꺼이 받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. 그것이 그분에게 무엇보다도, 누구보다도 크고 기쁜 봉헌이었습니다.

작은마음 친구들은 오늘 무엇을 봉헌했나요?
하느님께 무엇을 봉헌할 건가요?



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나의 삶

중계양업 성당 6학년 이서준 루카



성직자가 아닌 모든 신자를 '평신도'라고 하지요. 루카 어린이의 작품을 보면 우리가 평신도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담겨 있어요. 매주 미사에 참례하고,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서, 부부 사이에서, 이웃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요. 평신도 주일을 맞아 우리 작은마음 친구들도 하느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한 주를 보내도록 해요!

